#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텍스트언어학*

김 윤 한
(언어학과 교수)

## 머 리 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고 또 문자로 전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대는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이다. 인간 개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양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많은 번역물이 총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오역된 번역물이 양산된다는 점이다. 오역된 번역물은 정신적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공해보다 더 심각하고 또한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새로운 학문, 사상, 문학, 기술 등은 대부분 타언어권이나 문화권으로부터 번역을 통해서 유입되는데 번역은 그 가장 경제적 방법이다. 그리고 정확성은 번역의 생명이다. 현대인의 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번역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또한 무비판적으로 번역물을 대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최적의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했다. 다시 말해서 번역학의 목적은 최적의 번역을 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번역이란 문자(기호)의 전환이 아니다. 문자라는 형식(표현수단)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과 전통, 세계관(이데올로기)[1] 그리고 문화 등의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번역작업이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번역의 핵심적 문제이다.

최근 1970년대 중반 이후 텍스트언어학의 출현과 더불어 정체상태에 있었던 번역이론은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번역가는 개별적 어휘나 문장이 아니라 텍스트를 번역한다. 따라서 번역은 텍스트중심이어야 하며 번역은 기록된 원어텍스트에서 최적의 역어텍스트의 번역등가를 창출하고 문체론적으로 최적의 역어텍스트를 생성하는

* 이 연구논문은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1) 불경의 원문은 외설적인 색채가 농후한 부분이 있는데 번역과정에서 그 당시 중국의 세계관(이데올로기) 즉 유교사상 때문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작업이다. 번역가는 원어의 문법, 문체론과 텍스트화용론에 관한 충분한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외적 사항에 관해서도 다양한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요약컨대 번역은 원어텍스트를 이해·분석하고 번역등가를 찾아서 원어텍스트에 상응하는 역어텍스트를 생성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번역은 언어학적 문제만이 아니다. 언어능력은 번역을 위한 전제조건일 뿐이다. 번역가는 언어학적, 해석학적 그리고 창조적 능력 외에도 정확한 판단력은 물론 세계관, 역사, 문화, 심리, 사회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번역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번역비평이다. 번역비평을 통해서 보다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필자가 본논문을 집필한 목적은 번역의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데 있다. 본논문에서 필자는 텍스트언어학과 번역학의 관계를 규명하고 번역등가 설정의 조건을 제시하고 번역비평의 문제점을 해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세 가지 요인 즉 텍스트언어학, 번역등가 및 번역비평은 번역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번역학의 발전은 이 세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Ⅰ. 언어학적 번역이론의 정립과 발전양상

번역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번역은 인간이 언어장벽을 극복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또한 인간은 번역을 통해서 다른 언어권의 사상과 경험을 공유하며 현재와 같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번역에 관한 완벽한 역사는 체계적으로 집필된 바가 없다. 고대에는 그리스어 텍스트를 라틴어 텍스트로 번역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원문텍스트 중심의 번역방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고대 로마시대 로마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강해지자 로마인들은 자기 민족과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지니게 되었다. 외국의 문학작품을 문학적 전거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Thierfelder 1955, 52) 텍스트의 내용과 문체를 마음내키는대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 문학작품의 내용과 문체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원문텍스트 중심의 번역방법은 역어텍스트 중심으로 전환되었다.[2] 예컨대 역어텍스트는 원문과 대등한 가치를 지닐 뿐더러 창조적 성취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번역텍스트는 가능하다면 원문텍스트의 예술적 수준이나 미학적 표현성을 능가할 수 있고 또한 번역가는 원저자를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번역방법의 주창자로 Cicero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번역의 수사학적-문체론적 기능의 진취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에 의하면 번역가는 해설자로서 원본텍스트의 표현에 충실하든지 연사와 같

2) 이 경우 번역은 지적 발전의 성취의 표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Schadewaldt 1963, 235) 번역의 주요목적은 원어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 있지 않았다.

이 청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Cicero는 원문중심의 번역방법이 아니고 역문중심의 번역방법 즉 자유스러운 번역방법(의역)[3]을 주장했다. 그의 단어와 의미Wort und Sinn의 이분법적 번역방법은 번역방법의 기준으로서 Hieronymus, Horace, Quintilian, Jerome, M. Luther, Schleichermacher, Benjamin 등을 거쳐 현재까지도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icero가 처음으로 직역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번역 즉 의역을 주장했다. 그러나 좀더 좁은 의미에서 현대 번역학Übersetzungwissenschaft[4]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Schleichermacher(in Störig 1963, 38-70)라고 볼 수 있다:

1) Schleichermacher가 처음으로 해설작업으로부터 번역작업을 구별했다.

2) 그가 처음으로 충실한 번역 즉 문학작품 텍스트와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 방법을, 또 한편으로 기계적 번역방법 즉 실용적 텍스트의 번역을 구분했다. 그는 두 종류의 번역방법을 구별함으로써 또한 두 유형의 텍스트 번역가들을 판단할 질적 기준을 제시했다.

3) 그는 인간을 언어적 자유와 공약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에서의 존재로 보았다.[5]

Schleichermacher에 의하면 번역텍스트에는 즉 독자에게는 원문의 언어정신이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번역의 효과는 외국어에 유창하고 학식있는 전문가의 취향에 맞도록 해야 한다(ibid. 51). 이에 상응하는 번역방법은 Luther에서와 같이 독일어화 Eindeutschen나 의역Umschreiben 또는 모사Nachbilden가 아니라 낯선 표현의 방법 Methode des Verfremdens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번역문은 외국어의 번역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역어텍스트에 원어텍스트를 충실히 재현할 수 있음이 보장된다. 이 경우 물론 표현상의 어색함은 감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는 언어의 정신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 자신의 어법은 원어의 어법과 융합하여 번역문에 새로운 조어Ursprache가 생성되어야 한다.[6]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있고 중요한 번역이론의 주창자는 Schleichermacher이다. 그는 그의 논문 "Ü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번역의 상이한 방법에 관해서"(1813)에서 그가 Platon 번역에 적용했던 번역원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했

---

3) 자유스러운 번역freie Übersetzung은 충실한 번역treue Übersetzung과 더불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번역방법이다.

4) Fränzel(1914, 206)에 의하면 번역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아마도 Schleichermacher인 것 같다.

5)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의 언어에 의존한다는 Humboldt의 명제를 수정한 것이다.

6) 이러한 번역방법은 W. Benjamin의 논문 "Die Aufgabe des Übersetzers번역가의 과제"(in Störig 1963, 156-169)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 그는 이 논문에서 번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양상 즉 해결불가능성에 관해서 논의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텍스트유형을 확정하고 학술용어와 일반적인 어휘를 구별했다. 또 한편 그는 번역을 본질적으로 이해의 과정으로 보았다.

Schleichermacher와 더불어서 Humboldt는 독일을 18세기말과 19세기초에 유럽 번역이론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번역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유명한 번역가로는 H. Voss, L. Tieck, A. Schlegel, Ch. Wieland, J. Goethe, F. Schiller을 들 수 있다.[7] 번역이론의 발전에서 Humboldt가 지니는 의의는 대단히 큰데 그의 이론은 그의 개별언어의 내적 형식innere Form의 개념에 토대를 둔다. Schleichermacher의 번역에서의 낯선 표현Verfremdung의 가정은 오랜 전통을 지닌 신비지향적 번역방법의 정점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Humboldt의 번역이론에 관한 접근방법은 우선적으로 G. Leibniz의 논문 "Unvorgreifliche Gedanken, betreffend die Ausübung und Verbesserung der Deutschen Sprachen독일어의 사용과 개선에 관한 표준이 될 수 없는 사고"(1699), G. Vico의 단원론자 철학, J. Hamann의 반칸트적 "Versuch über eine akademische Frage학문적 문제에 관한 시도"(1760) 그리고 J. Herder의 "Physiognomie der Völker민족의 인상"(Christmann 1966) 등에 기초한 번역이론 발전의 절정을 예고한다. 번역의 이론사에서 뚜렷한 전환점이 되는 낭만주의의 영향하에서 Humboldt는 언어와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기능을 언어공동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외적 실체의 성찰로 간주했다.

Humboldt(1910, 152)에 의하면 언어간의 차이는 기호나 음성의 차이가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세계관의 차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민족정신의 외적 표현 즉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정신이고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언어이다(Homboldt 1949, 60f). 사고는 언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는 특정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언어와 실체를 동일시하는 철학적 사고는 주관적 이상주의다.[8]

이러한 그의 언어관이 번역에 미친 영향은 그가 1796년 7월 24일 A. Schlegel에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에 잘 나타난다. 즉 모든 번역작업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모든 번역가는 자기 자신의 모국어의 취향을 희생시켜서 원문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는 원문을 희생시키고 모국어의 특징적 표현에 너무 치우치며 그 중용을 택하기는 불가능하다. Humboldt의 언어관에서 번역이론에 관한 다음의 두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Wilss 1982, 35f):

---

7) 예를 들면 Schlegel의 Shakespeare 번역은 인간지성과 번역의 기념비적 존재다. Schlegel의 덕택으로 독일인은 영어원문 없이도 Shakespeare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으며 독일인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Shakespeare라고 칭한다.

8) 이러한 주관적 이상주의는 객관적 존재보다 의식을 더 중시하고 유효성이 개별언어와 언어외적실체의 총체적 질서체계를 지배하는 보편적 원칙의 한계를 초월하는 두 개념적 체계의 선험적 존재를 부정한다.

1) Humboldt는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 간의 융합은 기능적 등가의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개별언어를 특성화하는 원칙을 Schlegel, Scheichermacher, Schadewaldt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같은 표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원어와 역어중심의 번역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번역가가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의 완성된 번역물은 어떤 경우라도 질적으로 원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2) 텍스트를 충분히 번역할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Humboldt의 회의는 17세기와 18세기에 철학적으로나 실용주의적으로 언어기호는 상호간 교환될 수 있다는 견해와의 단절을 뜻한다. 18세기의 번역에 관한 낙관론의 가장 뚜렷한 실례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의미상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J. Breitinger의 선언이다. 또 한편 어떤 텍스트도 번역될 수 있다는 Lichtenberg의 주장은 언급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Humboldt는 그 당시까지 언어와 사고의 관계 또는 언어의 역사적 특성의 원칙을 지닌 언어와 실체 사이의 관계를 결정했던 논리적 접근방법을 대체했다. 특히 Humboldt가 주장한 정신적 유일성과 개별언어 구조상의 특성에서 그의 이러한 견해가 잘 반영되어 있다. Schleichermacher가 언급한 구조상의 특성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D. Diderot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와 같이 구조상의 특성은 언어 자체의 본질적이고 개별적 세계가 항상 소실되기 때문에 번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Wilss(ibid. 36f)에 의하면 Humboldt가 언급하려고 의도한 것은 모든 개별언어의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궁극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1) 모든 텍스트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2) 모든 언어(아무리 미개한 언어라도)는 궁극적 분석단계에서는 다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교적 표현의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생성적 능력은 대단히 크므로 모든 언어공동체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경험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을 포함해서 언어외적 모든 사태관계를 충분히 표현하고 기술할 수 있다. 예컨대 언어간의 구조적 불친화성에서 유래된 번역의 불가능성이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극복될 수 있다.

Humboldt는 Schleichermacher와 같이 변증법적 언어개념의 토대 위에서 체계system(ergon작품)로서 언어개념과 과정process(energeia작품)으로서 언어개념을 결합시켰다.[9] Humboldt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호화된 도구로서의 언어개념은 그로 하여금 개별언어의 이질적 구조체계에 바탕을 둔 번역의 언어학적 불가능성의 철학적

9) Humboldt는 이러한 언어관에 의해서 언어의 심리적 특성과 구체적 발화에서의 정적 그리고 동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본질적 개념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는 20세기까지도 유효한 언어의 상반되는 양극단적인 언어학적 그리고 심리언어학적 이론을 정립했다. 이러한 언어에 관한 그의 견해는 개념적 이분법dichotomy으로서 langue/parole(Saussure), Sprach/Rede(W. Porzig), language/speech(A. Gardiner)와 competence/performance(Chomsky) 등의 용어에 반영되었다.

가정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했는데 이것은 번역의 언어학적 불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가정을 그 자신의 광범위한 번역작업에서 얻은 경험과 모든 언어는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또한 모든 언어는 보편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가정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였다.[10]

위에서 논의한 Humboldt의 번역이론의 문제점은 요약컨대 모든 인간에게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체계로서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모든 개인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는 사실이다. 한 언어내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인지되는데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어려움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언어가 모국어적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특정의 체계 즉 고유의 특별한 세계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면 번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는 Aeschylos의 Agamemnon 번역의 서론에서 이러한 작품의 번역은 그 특성상 번역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Humboldt, Einleitung zu "Agamemnon", in Störig 1963, 71-96). Humboldt는 사고는 모국어에 종속되어 있다고 간주했으며 그의 번역의 불가능성에 관한 이론은 바로 여기에 토대를 둔다. 그에 의하면 번역가는 예술가와 같이 언어정신을 철저히 인지하고 이것을 생소한 표현으로 역어에 충분히 재현해야 한다.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한계성)에 관한 문제는 그 이후 1세기를 훨씬 더 지난 현재 또 다시 번역학 주제중의 하나로 등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번역학에서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부각된 이유는 다양한데 그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Wilss 1982, 37ff):

1) 세계 2차대전 이후 번역과 해석의 중요성, 특히 특수목적을 지닌 텍스트의 번역이 필수적이고 또한 대량으로 증가되었다. 국제적으로 번역의 중요성이 인정되었지만 훌륭한 번역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2)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가 1970년대까지 약 25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현재 기계번역의 수준은 언어학적 또는 언어외적 텍스트를 번역하는 데 그 내용과 형식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3) 공시적-기술적 언어학의 등장은 적어도 20년 동안 방법론과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기술적-비교언어학descriptive-comparative linguistics(Wandruszka 1969), 대비언어학contrastive (confrontative) linguistics(Coseriu 1970, Bausch 1973, Kühlwein 1980) 그리고 비교문체론stylistique comparée(Vinay/Darbelent 1958, Malblanc 1961)의 세 분야의 언어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 분야는 번역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구조주의적-생성언어학적 이론과 언어학적 관계의 상황적-문맥적(Firth 1957)

10) Humboldt에 의해서 제시된(이미 Leibniz에 의해서 거론됨) 단자론적이고 보편적 언어이론은 19세기에 자취를 감추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논쟁은 번역이 원어중심이어야 하는지 또는 역어중심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악명높은 논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상호보완은 번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후자는 번역학의 정립에 여러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텍스트언어학의 출현은 번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텍스트언어학의 주요목적은 동적이고 상대적인 텍스트등가를 설정함으로써 텍스트의 발신인과 수신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고 또한 텍스트유형에 따라 통사적, 의미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텍스트층위를 상호관련시킬 수 있는 텍스트문법을 정립하는 데 있다. 텍스트등가의 설정은 원문중심의 직역과 등가번역의 균등화를 촉진시키고 번역등가의 기능적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표signifiant (signifier)와 기의signifié (signified)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의미 designation(meaning)와 언어기호와 외적 세계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지시관계 denotation(reference)를 구별함으로써 번역과정의 언어적 차원(말해진 것what is said)과 그 의사소통적 차원(의미된 것what is meant)의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편 인간의 언어능력language ability(Saussure의 faculté de language, Chomsky의 언어습득 장치language aquisition device)이 모국어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번역할 수 있는 능력 즉 Z. Harris의 용어에 의하면 자연번역natural translation 역시 인간의 기본적 언어능력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5) 언어의 보편성에 관한 연구(Chomsky 1957, Lenneberg 1967)는 언어의 화용론적 보편성은 물론 통사적 및 의미론적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토대를 둔다. 모든 자연어는 아니지만 다수의 자연어간에 이러한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비록 이러한 보편성(심층구조)이 표층구조에서는 서로 다르게 표현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6) 구조주의 언어학자와 생성론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구조의미론[11]은 대비언어학뿐만 아니라 번역과정에서 어휘적 등가를 객관화하는 데 필수적 공헌을 하는 범위내에서 번역학을 위해서도 적합한 비교어휘론에 관한 연구방법론의 근간이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언어이론의 출현은 여러 면에서 최근 언어학적 비판 아래 활성화된 번역이론의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번역의 전통적인 두 방법 즉 직역과 의역에 관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의 특성이 고려됨으로써 또한 언어내적, 언어외적으로 구조적 차이가 있는 텍스트의 번역과정에서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텍스트층위에서도 유효한 의사소통적 텍스트의 생성에 관한 최적의 번역방법이 모색되었다. 실제적 번역과정에서 언어쌍에 따라 번역방법이 다르고 텍스트의 번역성과 최적의 텍스트등가 설정은 상호간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텍스트의 상대적 번역성과 번역의 불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현대 번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은 관념상으로보다는 실제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Söll 1971, 25).

---

11) 구조의미론의 주요 연구대상은 의미의 구성성분 분석과정(Nida 1975)이다.

J. Herder, H. Hamann, Humboldt 등에 의해서 설정된 언어의 내적 형식innere Sprachform[12]의 개념은 최근 1) Weisgerber의 내용문법, 2) Sapir-Whorf의 가설(언어상대성원리), 그리고 3) Chomsky(1965, 22)의 심층구조이론 등의 변이된 이론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Humboldt의 이론이 번역이론 정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간단히 논의하겠다:

### 1) Weisgerber의 내용문법

언어내용 연구의 대표자인 Weisgerber는 Humboldt 이론의 직접적 후계자로서 언어를 언어공동체 소속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정신적 중간세계Zwischenwelt, 모국어의 세계상Weltbild der Muttersprache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모든 언어는 상대적으로 폐쇄된 체계로서 다른 언어와는 배타적 관계에 있다. 모국어의 세계상의 존재와 그것에서 유래된 모든 원칙, 즉 의사소통의 과정은 개별언어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 실례로서 그는 (1) 친족관계, 색, 자연현상[13] 등의 상이한 명칭, (2) Weltschmerz, esprit, gentleman 등 특정의 언어에 고유한 단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경우 나타나는 어려움, (3) 어장Wortfeld의 존재[14], (4) 서로 상이한 내포Konnotation의 영역[15] 등이다 (Stolze 1994, 25f). Weisgerber의 가설에 의하면 기본적 차이는 표현의 층위 즉 모든 언어의 형식적 양상에서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언어의 내용면에서도 나타난다. 언어와 대상의 언어외적 세계간의 연계에 관한 논쟁에서 그는 전자는 후자의 충실한 거울이라는 명백한 태도를 취했다(Vermeer 1971, 97).

그러나 Wilss(1982, 41f)에 의하면 Weisgerber의 가설은 번역작업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의 가설에서 번역의 불가능성이나 부분적 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유도해 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1) 이러한 사고방식은 거의 반경험주의적 방법으로서 번역의 상황

---

12) 언어의 내적 형식에는 질료적으로 실현된 언어외적 요소와는 달리 모든 언어에 고유한 사고법칙 즉 세계관Weltansicht이 내재되어 있다.

13) 개별언어에 의해서 결정된 실체의 구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등가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실례로서 눈을 들 수 있다. 독일어에는 눈Schnee이라는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Neuschnee갓 내린 눈, Altschnee오래된 눈, Pulverschnee분설, Schneematsch질척질척한 눈, Schneeregen진눈깨비, Harsch경설, Firnschnee만년설 등의 다양한 눈에 관한 표현이 있다. 영어에도 new snow갓 내린 눈, old snow오래된 눈, powder snow분설, slush질척질척한 눈, sleet진눈깨비, crusted snow경설, firn만년설 등이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독일어와 영어의 눈에 관한 단어간에는 시간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용어적 사용에서 정확한 1:1의 대응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Wilss 1982, 40).

14) 모든 단어의 내용은 전체어장의 구조내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상이한 언어들간의 단어는 서로 비교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개별언어에서 그 위치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15) 예를 들면 프랑스인은 escargot달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급요리를 떠올리지만 독일인들은 입맛없게 하는 끈적한 생물을 연상한다.

적-문맥적 차원을 무시하고[16], (2) 이러한 견해는 언어학적 의사소통의 주변적 현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Mounin(1963, 266)의 불가능성의 이론이 전적으로 예외적 현상에 근거를 둔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옳다. 따라서 Mounin의 견해는 정확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Weisgerber(1950, 40)의 것과는 대조적이다. Weisgerber는 그의 이론을 개별언어와 언어공동체 간의 언어와 사회문화의 구조적 차이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언어와 상이한 언어가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는 번역을 이러한 사실의 논리적 귀결로 보았기 때문에 번역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Weisgerber의 이러한 주장은 환원론자적, 비기능주의적, 정적 언어관과 일치하며 L. Hjelmelev, A. Mertinet의 견해와도 유사한데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 2) Sapir-Whorf의 언어상대성이론

Weisgerber는 개별언어의 제한된 전환가능성에 관한 논거를 모국어의 세계관이 지배적이며 인간을 모국어의 노예로 만든다는 이론에 두었다(Dürbeck 1975, 8). 그 반면에 Sapir-Whorf의 가설[17]은 Whorf(1963, 10)의 아즈텍어Aztec와 호피어Hopi의 두 인디안언어에 관한 연구에 기초한다. 언어상대성이론의 연구목적은 사고와 언어를 동일시하고 언어구조를 통해서 실체파악이 가능한가를 밝히는 데 있다. 문법적 구조와 세계상과의 인과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반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또한 반비트겐슈타인적 언어이론과 희랍인이 이미 주장한 언어의 보편적 인지기능의 이론을 구별할 목적으로, Whorf는 아즈텍어와 호피어를 미국영어(유럽표준어Standard Average European)와 비교했다. 그는 그 연구를 통해서 두 인디안언어와 미국영어의 공간과 시간개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확증했다. 요약컨대 Whorf의 이론은 언어의 보편적 개념범주non-language-specific conceptual categorie의 선험적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언어간의 인식론적 관념연합이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언어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Lenneberg는 언어상대성이론을 비판했다. Lenneberg는 Whorf의 자의적 방법과 순환적 논법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Whorf의 순환적 논법은 그가 자구번역literal translation의 과정에서 추론된 언어상호간의 구조적 상위성이 존재한다는 신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러한 구조적 상위성이 언어상대성이론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Whorf가 자구번역의 절차를 사용하는 대신에 자구번역이 아닌 번역의 보상적 방법을 적용했다면 제한적 이론에 도달했을

16) Weisgerber의 가설은 언어행위가 간언어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지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sk *someone about something*, ask someone for something, persuade someone to do something, order someone to do something, criticize someone, praize someone, lie to someone 등을 들 수 있다(Austin 1962, Searle 1969, Wunderlich 1976).

17) Whorf의 이론은 Yale대학의 은사인 Sapir교수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상대성이론은 Sapir-Whorf의 가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것이다(Wilss 1982, 43).

언어의 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언어가 형식과 내용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은 불가능하다. 모든 번역은 상이한 정신적 중간세계를 나타내는 어느 한 모국어로 표현된 내용을 다른 모국어로 재생하는 작업이다. Humboldt의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역시 번역은 불가능하지만 또 한편 언어정신Geist der Sprache의 입장에서 보면 번역의 가능성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번역의 상대주의적 개념을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 이러한 개념이 지배적이다. 언어를 문화와 국민적 특성의 직접적 표현으로 간주한다면 물론 외국어 텍스트는 언제나 대충 번역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 실례로서 무지개 색의 분류나 눈의 종류를 들 수 있다.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무지개의 색을 6가지로 분류하고 눈과 얼음 속에서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에게 눈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눈, 지면 위의 눈, 얼음으로 된 눈, 물기가 많은 눈, 바람에 휘날린 눈 등 20여가지의 수많은 눈의 종류가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고유한 단어로 표현된다. 그 반면에 쇼나어Shona는 무지개의 색이 4가지로, 바사어Bassa에는 hui, ziza의 두 가지로 표현되며 아즈텍어에서 kalt찬/Eis얼음/Schnee눈의 개념이 마치 eisig얼음의/Eis얼음/Eis-Nebel빙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듯이 하나의 개념이며 또한 한 단어로 표시된다(Friederich [5]1985, 14ff). 물론 번역하기에 불가능한 이러한 극단적인 예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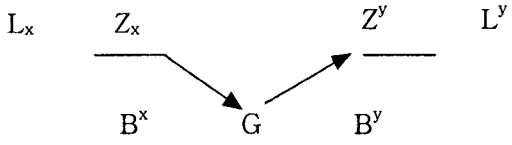
Dürbeck은 어휘의 차원에서 개념을 고정화시킨 언어상대성이론은 문장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하여튼 Sapir-Whorf의 가설은 현재 일반적으로 과장되고 낡은 이론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가설에 의해서 번역에 관한 인위적 장벽이 설정되었는데 번역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련의 원어기호의 재생으로 간주될 경우 인위적 장벽은 즉시 파괴된다. 또 한편 이러한 재생은 우선적으로 문장과 텍스트의미론에 의해서 결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 어휘의 한계를 무시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만일 개별언어(signifié)에 연계되었지만 그것과는 독립적인 고유명사적 개념nomasiological concept과는 상이한 의미론적 의미sema-siological meaning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번역등가의 설정은 가능해진다(Wilss 1982, 43).

언어를 모국어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유의 세계상을 표현하는 작용이나 힘으로 보지 않고 사고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의 도구 즉 기호체계로 간주한다면 번역의 개념은 아주 달라진다. 물론 이 경우에 모든 인간 자신의 이성이 인식의 원천으로 가정되었다. 보편언어Universalsprache의 개념은 모든 언어의 기저가 되는 일반적이고 논리적 형식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이론은 이미 중세시대에 라틴어에 적용되었고 Descartes는 일반적이고 인위적 언어, Leibniz는 보편적이고 상징적 언어를 창조하려고 시도했다. 프랑스의 합리주의적 정신에 따라 A. Arnauld와 E. Lancelot (1660)는 일반적이고 논리적 형식의 개념에 기초하여 보편문법 즉 la grammaire de Port-Royal을 저술했다. 여기에서 Arnauld와 Lancelot는 희랍어, 라틴어와 프랑스어

를 토대로 모든 언어에 유효한 범주를 설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적 기능에 의해서 규정되며 또한 기호체계로서 이러한 목적에 가장 알맞게 체계화되었다. 일반적이고 논리적 형식의 개념은 언어의 보편성 추구에 관한 연구의 촉진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의 보편성의 규명에 관한 시도는 (1) 모든 언어는 하나의 동일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고, (2) 모든 언어공동체에서 유사한 문법적 구조에 의거한 언어의 동일한 기능, (3) 인식과정과 언어습득 메카니즘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동일한 생물학적 장치에 바탕을 둔다(Stolze 1994, 36f).

언어의 보편성이론은 언어상대성이론과는 대조적으로 번역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대언어학에서 모든 것을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것은 언어의 보편성이론에 근거를 둔다. 바로 여기에서 이미 언급한 모든 텍스트는 어떤 형식으로라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Mounin(1963, 222f)은 보편성이론과 번역과정에서 특히 언어의 지시기능을 중시했다. 그는 개별언어간의 언어외적 사태관계 즉 화용론적 보편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어도 언어의 보편성의 영역내에서는 모든 번역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예컨대 한 단어는 한 사건만을 표시하고 한 사건은 한 단어에 의해서만 표현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개별언어간의 학술용어를 통일한다면 과학적이고 기술적 번역은 완벽하게 자동화될 수 있다(Mounin 1967, 158f).

이러한 견해는 Whorf의 언어상대성이론의 신봉자인 Koschmieder(1965, 104)에 의해서 한층 더 구체화되었는데 그의 이론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가정에 토대를 둔다. 그에 의하면 번역이란 (1) 원어($L^x$)의 기의($B^x$)에 해당되는 기호($Z^x$)가 의미하는 것(G)을 해명하고, (2) 이에 대응하는 역어($L^y$)의 기의에 해당되는 기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는 번역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위의 도식에서 Koschmieder 자신이 번역과정에서 번역가의 역할을 배제하고 번역과정을 언어학적 기본요소의 관계로 축소하여 이러한 기본요소간의 관계를 구체화했다. 그의 상대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고도로 추상화된 번역이론의 정의는 인과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고가 기능적-상관적 사고의 표현임을 명시하는 과학적 접근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번역방법은 이전의 구조적-분석적 과정에 관한 번역의 이론정립에서 그 구심점이 화용론적 방법으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언어학과 번역학의 연관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텍스트의 번역에는 번역의 기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 번역에 적합하다

(Weinrich $^{2}$1966).[18]

기호체계로서 언어에 관한 논리적 고찰은 현대언어학에서 Saussure에 의해서 다시 시도되었다. 언어학은 언어의 체계적 기술로서 그 연구대상은 경험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빠롤parole에서 간접적으로 추출된 추상적 개념의 랑그langue이다. Saussure 이후 기호학은 C. Ogden/L. Richards, Ch. Peirce, K. Bühler, Ch. Morris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그 기본개념은 현대언어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번역이론 또한 여기에 바탕을 둔다.

### 3)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이론

1960년대 초기까지 일반적으로 개별언어에 관한 기술문법이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고 언어간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언어학이 번역이론의 발전에 이론적으로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Chomsky의 심층구조deep-structure에 관한 이론은 번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의 문법이론은 번역학을 위해서 정립된 것은 아니다.[19] Chomsky의 심층구조이론 역시 일반적이고 논리적 형식의 전통적 개념의 변형이다. 그에 의하면 심층구조는 사고형식Form des Gedankens의 반영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 공통적이다. 여기에서 "사고형식"이란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구조란 순전히 정신적이고 또 한 문자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그의 표층구조/심층구조이론과 변형규칙은 비록 어느 한 언어를 근간으로 하여 설정되었지만 이러한 이론이 번역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그의 표층구조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통사적 및 의미론적 정보를 지닌 심층구조이론은 원어텍스트의 심층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역어텍스트의 표층구조로 전환시키는 번역가에게 무관할 수는 없다. Nida는 번역이론을 정립하는 데 Chomsky 이론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20] Nida의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번역학에 관해서-성서번역에 포함된 원칙과 절차를 중

---

18) 이 도식에 의하면 번역과정이 하나의 단순한 구성요소모델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텍스트의 번역가능성은 통사적, 의미론적 그리고 경험적이 아닌 보편적 범주의 존재를 통해서 보장된다(Wilss 1982, 44).

19) 변형생성문법은 형식화된 언어학과 심리언어학의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학이 필요로 하는 언어상호간의 언어수행모델을 제공하지도 못했다. 번역학은 의미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성상 문체론적 문제와 관련된다.

20) Nida(1976, 71)는 Chomsky가 변형생성문법을 정립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해석에 심층구조의 이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A New Methodology in Biblical Exegeses성서해석의 새로운 방법론"(1952)에서 Nida는 복잡다양한 표층구조를 대상, 사건, 추상개념, 관계의 기본요소로 구성된 심층구조understanding level로 역변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Nida가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통사구조(1957)의 등사판을 출판 2년 전에 읽었으며 Chomsky 이론의 도움으로 그의 이론을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으로(1964)은 성서번역뿐만 아니라 일반적 번역이론의 경전이 되었다(Gentzler 1993, 44).

Nida(1964, 20f)는 성서번역 작업과정에서 번역의 이론화보다는 그 실용적 목적에 치중하였다. 그의 번역이론은 기계적 정확성, 형식존중, 의미의 직역 등에 중점을 둔 고전적 번역이론이 19세기에 재현된 사실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고전적 이론의 대표자로서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의 번역가인 M. Arnold를 들었다. Nida의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21]은 성경번역에 편중되고 또한 실용적 참고서적의 성향이 농후하지만 최근 번역학이론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Nida는 그의 번역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Chomsky의 세 계층모델(기저, 심층구조, 표층구조)[22]을 간소화하여 마지막 두 계층(심층구조와 표층구조)만을 수용했다. 두 이론은 다른 전제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심층구조의 존재를 가정했다.

번역가의 관점에서 보면 변형생성모델은 너무나 이상적이며 실용적 번역의 문제점을 취급하지 않았다. 번역가에게는 보편성을 가정하는 언어이론보다는 Quine의 유의성Synonymity의 개념이 더 실용적으로 보일 것이다. 예컨대 번역가에게는 구어체를 제외하는 언어이론은 너무 이상적이고 또한 이론적이다. Chomsky의 재생규칙은 이상적이고 수학적으로는 옳지만 그것을 언어학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Chomsky의 이론이 이상적이라면 Nida의 이론은 경험적이다. 또 한편 Nida는 의미해석이 개인의 경험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개념구조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의 번역이론에서 Chomsky의 이론과는 달리 문화적 요인이 중시된다. 다시 말해서 Nida는 실용적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메시지 수신인의 응답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3] Chomsky나 구조주의자들이 언어기호를 중시한 반면에 Nida는 기호에 대한 응답을 중요시했다. 따라서 번역이 신이 의도한 응답을 간청할 수 있다면 그 번역은 성공적이다. Nida에 의하면 단어나 기호는 단순한 표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형식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하다. 또 한편 Chomsky는 Sapir/Whorf의 언어상대성이론이 문화적 특성을 너무 중요시한다고 비판했으나 Nida의 의미개념은 Chomsky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Nida는 성경번역에 치중된 실용적 번역방법의 비체계성을 인식하고 그의 방법을 모든 일반적 번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법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그의 저서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

21) Nida는 그의 성서번역 과정에서 얻은 실용적이고 비체계적 방법을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일반적 번역학의 정립을 시도했다.

22) Wilss(1982, 86)에 의하면 Chomsky의 이론은 모두 언어상호간 호환가능성을 전제하고 그 결과 또한 번역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3) Nida에 의하면 기독교적 신앙심은 인식론적이라기보다는 행동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의 번역 목적은 수신인과 텍스트 간이 아니고 수신인과 신 사이의 담론에서 비롯되는 적절한 응답을 찾아내는 데 있다.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설정하려고 시도했다. 전통적으로 의역free translating은 내용을 중요시하는 텍스트에, 직역faithful translating은 형식을 중시하는 텍스트에 적용되었다. 그는 후자의 방법을 선호했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용어의 전통적 사용방법을 바꾸어 의역을 그 자신의 역동적dynamic 방법에 원용했다. 그에 의하면 역동적 번역방법은 직역보다 더 충실하게 원문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Nida 1964, 191f). 그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정확한 번역에 관한 규범을 설정하려고 시도했다. 또 한편 그는 정확히 원문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심층구조를 가정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지니는 형식 즉 표층구조는 등한시되었다. 따라서 심층구조를 중시하는 Chomsky와 Nida의 두 이론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모델의 중요한 차이점은 Chomsky의 보편적 형식이 Nida의 것(kernel)보다 한층 더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Gentzler 1993, 59). Chomsky의 인본주의적이고 데카르트적 이론과 표층구조/심층구조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번역이론은 Nida(1964), Steiner(1975) 등의 번역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Ⅱ. 번역단위와 번역등가의 설정

번역학Übersetzungwissenschaft은 1960년대 중반 이후 Wilss, Reiss, Koller 등과 특히 Leipzig학파[24](Kade, Jäger, Albrecht, Neubert 등)를 중심으로 독일에서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전통적 번역이론을 전과학적 방법으로서 주관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번역학을 위해서는 언어학과 같이 정밀과학 특히 수학과 형식논리학의 연구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5] 모든 언어학적 번역연구 방법의 공통적 과제는 번역등가[26]의 개념설정에 있는데 이러한 등가개념은 번역학의 중심과제를 충실한(직역)/자유스러운(의역) 번역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방법에서 가정된 언어상호간의 유사점(비교점)tertium comparationis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Wilss 1980, 10). 따라서 언어상호간 비교의 유사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등가개념은 번역을 정의하는 데 본질적 개념으로 등장했다.

Leipzig학파의 일원인 Jäger(1975, 77)는 번역의 연구대상을 언어적 과정으로서 번역과정과 그 과정의 기저에 놓여있는 언어적 메카니즘의 분석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의했다. 그 중심개념은 기호와 기호교체인데 이것은 통신기술과 통신과학에서 유래되

24) Leipzig학파는 번역학을 응용언어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고 Translationslinguistik이라고 칭했다.

25)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 낭만주의자들이나 Paepcke는 "Die Sprachwissenschaft ist eine Wissenschaft ohne Sprache언어학은 언어가 없는 과학이 되었다"고 혹평했다.

26) 현재 번역등가라는 용어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은 번역과정에서 텍스트 정보내용의 불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통신과학의 관점에서 번역은 특별한 경우이다.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기호를 교체해주는 번역가(또는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의 수신인이 발신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호(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편 번역가는 원어텍스트의 수신인인 동시에 역어의 수신인에 의해서 해독되어진 역어텍스트의 발신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언어학자들은 등가개념은 특히 중요시했으며 정보의 불변성에 관한 통신과학의 논리적 요구에 따라 등가에 대한 연구는 번역학의 핵심문제가 되었다. Koller(1992, 151)에 의하면 랑그차원에서 원어와 역어의 체계가 의미론적-기능적 면에서 상호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롤차원에서 두 언어의 요소간에 내용면에서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번역과정에서 정보량은 불변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어와 역어텍스트의 정보상의 등가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내용면에서 원어텍스트는 물론 역어텍스트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제3의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Vernay 1974, 1-9). Vernay(ibid. 6)의 번역모델에서는 원어텍스트가 우선 랑그차원의 메타텍스트Metatext로 옮겨져야 한다. 언어외적 내용상의 범주의 관점에서 두 언어체계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증한 후에 생성문법의 이론에서와 같이 연역적으로 역어텍스트가 생성된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Kade의 언어학적 번역이론에서는 언어의 형식은 무시되고 그 내용만 중시되기 때문에 랑그와 빠롤 간의 차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번역은 비교점을 토대로 어느 한 언어기호를 다른 언어기호로 대치하는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다.

요약컨대 Leipzig학파의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두 언어체계의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어단위의 병렬적 관계에 대한 언어쌍과 관련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핵심적 문제는 두 언어간 등가의 언어단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Kade(1968, 90)에 의하면 번역단위Übersetzungseinheit는 내용상으로 정보불변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문은 원문텍스트와 동일한(등가의) 번역단위로 구성되었을 경우 그 번역은 등가관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가 번역단위로 완벽하게 분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 번역과정은 번역단위를 설정하고 역어에서 제시된 여러 잠재적 등가물potentielles Äquivalent중에서 최적의 등가물optimales Äquivalent을 선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논증은 대단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언어간의 등가를 확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Snell-Hornby(1988, 16ff)가 그 실례로서 등가를 의미하는 영어의 equivalence와 독일어의 Äquivalenz 사이의 차이점을 논의한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그녀에 의하면 두 용어간에는 매우 큰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두 용어의 본질적 차이는 두 어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각각의 언어체계내에서 그것들

이 차지하는 위치가가 다른 데에서 야기되었다. 영어의 equivalence는 학술용어로서 정밀과학에서 다수의 과학적 현상이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으며 수학과 형식논리학에서는 그 역도 보장된 절대적 대칭과 특성의 관계를 표시한다. 동시에 또한 equivalence는 영어의 일반적 어휘로서 오랜 전통을 가졌는데 OED에 의하면 그 형용사인 equivalent는 그 역사가 1460년까지 소급되지만 명사형인 equivalence는 1541년에 처음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J. Firth에 따르면 equivalence라는 용어는 원래 영국의 번역이론에서 모호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 반면에 Äquivalenz라는 독일어의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단어로서 Sander(1876)의 사전에 "Wertgleichheit등가"라는 뜻으로, Weber(1968)의 사전에서 그 형용사인 äquivalent는 그 외에도 "Entschädigung, Ersatz bietend배상, 보상을 제공하는"의 뜻으로 정의되었다. 독일어의 용어인 Äquivalenz는 Duden과 Brockhaus/Wahrig의 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학, 형식논리학 등 정밀과학의 학술용어로서 의미상으로 영어의 equivalence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27] 그러나 수학, 형식논리학 등 소수의 분야에서 표준화된 학술용어를 제외하고 언어학의 용어로서 1:1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영어의 equivalence와 독일어의 Äquivalenz가 동일한 개념일 수는 물론 없다. 외래어인 Äquivalenz는 즉시 형태론상으로 투명하고 한층 더 친근감이 있는 독일어의 일상어인 "Gleichwertigkeit(등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Äquivalenz와 Gleichwertigkeit는 상호교체할 수 없을 뿐더러 의미상으로도 일치하지 않으며 Äquivalenz가 equivalence와 더 유사하다는 점이다. 영어의 equivalence는 양적 근사치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독일어의 Gleichwertigkeit는 질적 평가(현재 영어의 equivalence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의미자질)를 지시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는 다음 예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 "Mann und Frau sind gleiwertig남녀는 동등하다."는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상적 문장이지만 "Mann und Frau sind äquivalent."와 "Men and women are equivalent."는 비문이다.

등가개념에 관한 논쟁은 Jakobson(1959, 233f)이 그의 논문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번역의 언어학적 양상에 관해서"에서 차등가equivalence in difference[28]의 개념이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말로 된 메시지의 수신인과 같이 언어학자는 그 메시지의 해설자로서 행동한다고 주장한 데서 유발되었다. Nida(1964)는 등가를 형식적formal 등가와 역동적dynamic 등가로 양분했는데 그 실례로서 성경귀절인

---

27) Wilss에 의하면 수학이나 형식논리학의 개념인 등가개념은 1950년대 기계번역의 전성기에 독일의 번역학에 학술용어로 도입되었다.

28) 독일의 번역학자들 "equivalence in difference"를 "Äquivalenz in der Differenz"라고 직역하여 사용했으며 차등가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엄격한 등가유형으로 간주했다.

"Lamb of God"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Lamb양"이 특히 희생을 의미하는 문맥에서 순진한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양의 직역(형식적 등가)은 "양"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동물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상징하지 않는 Eskimo와 같은 문화권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 경우 역동적 등가는 "Seal of God"일 것인데 그 이유는 Eskimo 문화권에서는 "Seal물개"가 순진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Nida의 "closest natural equivalence가장 근접한 등가"는 아마도 이러한 화용론적이고 접근적 방법을 의미할 것이다.

Catford(1965, 27)의 등가개념은 한층 더 일반적이고 또한 추상적인데 그는 등가개념을 "formal correspondence형식적 대응"과 "textual equivalence텍스트적 등가"로 양분했다. 그에 의하면 텍스트적 등가설정은 권위있고 능력있는 이중어 원어민이나 번역가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텍스트적 등가란 특별한 경우에 고찰된 원어텍스트나 그 일부분과 등가인 역어텍스트나 그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변형생성문법에서 제시하는 고립된 매우 간단한 유형의 문장이나 고립된 단어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번역시에 야기되는 복잡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Wilss(1977, 72)는 최적의 텍스트 등가개념을 도입했다. 그에 의하면 번역은 텍스트구성과 텍스트 재구성의 과정이다. 번역이란 원어텍스트에서 내용과 문체상으로 최적의 등가관계를 지닌 역어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번역은 번역가가 원어텍스트를 의미와 문체면에서 분석하는 이해단계와 번역가가 내용과 문체론적으로 분석된 역어텍스트를 커뮤니케이션적 등가의 관점에서 역어텍스트를 재생하는 재구성단계로 성립된다. 또 한편 Jäger(1975, 36)는 커뮤니케이션적 등가kommunikative Äquivalenz의 개념을 설정했는데 그의 정의에서는 1) 내용등가inhaltliche Äquivalenz, 2) 문체등가stilistische Äquivalenz, 3) 형식등가formale Äquivalenz, 4) 기능등가funktionale Äquivalenz, 5) 텍스트등가textuelle Äquivalenz, 6) 커뮤니케이션등가kommunikative Äquivalenz, 7) 화용론적 등가pragmatische Äquivalenz, 8) 영향상의 등가wirkungsgemässige Äquivalenz 등 등가개념이 매우 복잡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등가개념의 규정을 토대로하여 Koller(1979, 186f)는 다음과 같이 번역학에서 등가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1) 등가개념과 더불어 원어텍스트 및 텍스트요소와 역어텍스트 및 텍스트요소 사이의 관계가 가정되었으나 등가관계의 종류는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역어텍스트가 원어텍스트와 등가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일이다.

2) 등가관계의 종류는 등가개념의 사용과 관련되는 범위와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규정된다. 즉 역어텍스트가 한정조건과 관련된 어떤 특정의 요구조건을 충족했을 때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 간에 등가관계가 성립되었다고 공언할 수 있다. 형용사의 경우 내용상으로, 형식적으로, 기능상으로, 문체상으로 표현되는 관련조건은 내용, 형식, 문체, 기능 등이다. 등가관계의 조건은 역어텍스트의 질적 특성 x는 보존되어야 한다

는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은 원어텍스트의 내용, 형식, 문체, 기능 등이 역어텍스트에 보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또는 적어도 이러한 특성들이 가능한한 보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번역등가의 종류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은 1) 언어외적 사태관계(지시적 등가), 2) 언어화Verbalisierung의 방법(내포적 등가), 3) 텍스트와 언어규범(텍스트규범적 등가), 4) 수신인(화용론적 등가), 5) 형식적-미학적, 개인적 특성(형식적 등가)의 다섯 가지이다.

그러나 번역등가의 상대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를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Wilss(1982, 138-144)는 그 어려움의 본질적 원인으로 다음의 세 요인을 열거했다:

**1) 번역가 고유의 특성**

번역은 언어적 행위로서 인간행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번역가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2의 발신인으로서 그 자신의 의미와 문체에 관한 주관적 개념은 번역과정에서 특수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번역가는 의미상으로 유사한 단어군에서 어느 한 단어를 첫 느낌에 따라서 선택하며 그 자신의 경험과 논리적 판단에 의거해서 텍스트를 해석한다.

**2) 텍스트 특유의 요인**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분석과 역문의 재생성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번역가는 텍스트의 유형이나 의미상의 모든 문법적 모호성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등가 문제는 의미사의 이중성뿐만 아니라 통사적 복잡성에서 야기되는데 그 실례로서 영어 분사구문의 해석을 들 수 있다.

**3) 수신인(독자) 특유의 등가에 관한 문제성**

Nida가 번역의 사회언어학적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와 같이 독자층에 대한 번역가의 배려나 그에 따른 등가선택 문제는 번역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책은 성인용과는 다르게 번역되어야 한다.

문학작품(특히 운문) 번역의 경우 번역등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많은 번역가들은 일반적으로 번역이론 그 자체를, 그리고 특별히 번역등가 이론의 타당성과 적응성에 관해서 회의심을 표명했고 극단의 경우는 Reichert (1967)와 같이 번역의 방법과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가지론을 펴기도 했다. 물론 그의 주장은 문학작품에 국한되지만 객관적 번역등가의 설정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실제적 해결책으로 번역학자들은 다음의 세 접근방법을 시도했다(ibid. 146-151):